

1.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부활주일입니다. 예전 색깔은 흰색입니다.
2. 다하나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주일 예배는 부활절 온가족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예배후 식탁교제(potluck)이 있습니다.
4. 식탁교제 후 본당에서 주일학교 부활절 행사가 있고, 유아부는 야외에서 에그헌팅을 진행합니다.
5.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 31일 : 김다울 4/2일 : 임도영
 3일 : James Lee

*다음주 예배봉사자

- 기도: 박성조 / 설교번역: 허민준
- 4월 안내 및 봉사: 슬기로운 목장

*향후 교회 일정

- 4월 정기 심방 : 코니 목장
- 부서지기 모임 : 4월 14일 주일 오후 4시 30분 @ 시나이룸
- 전교인 가족캠프: 6월 8-9(토,주), Prairie River Camp

* 성서일과 Lectionary (제 12주)

시편 114:1-8 / 사 25:6-9 / 행 10:34-43/ 요 20:1-18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주일예배 : 매주 주일 오후 3시
 수요기도회 :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on Zoom
 마지막 주 수요일은 목자모임으로 대체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oneheartkoreanchurch.com
 213-357-7614

예 배 순 서

인도자: 김경현 목사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벤전 1:3-4 ————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기도 ———— 임상희 형제

찬송 ———— 165장 주님께 영광 ———— 다같이

성경봉독 ———— 누가복음 24장 13-35 절 ———— 인도자

설교 ———— 은총이 죽음을 이기다 ———— 김경현 목사

특송 ———— 다하나교회 찬양대

봉헌찬송 ————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 5절) ———— 다같이

봉헌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찬양 ————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 다같이

*축도 ———— 김경현 목사

* 표에는 일어납니다.

목회편지 / 흔들릴지언정 아주 앞드러지지 않아요

그날 삭풍에 느즈막이 피어난 매화꽃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셋째 아들의 출산을 단 며칠 남겨두고 제 마음은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매화꽃 마냥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016년 2월 말에 귀 밑 이하선이라는 침샘에 나오는 종양을 떼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안면 신경을 감싸고 있던 종양을 떼내는 수술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주치의 선생님께서도 들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지만 떼어낸 종양의 조직이 악성으로 판명났습니다. 부랴부랴 악성 세포들이 몸에 퍼졌는지 검사를 해야했고 그 검사를 기다리는 1주일의 기다리는 시간에 집주변을 산책하며 흔들리는 매화와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수술과 함께 치료를 종료한다는 소식과 함께 기쁨과 환희의 부활절을 맞이했었죠. 그때만큼 감격적인 부활절도 없었습니다. 3월 27일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후 나흘만에 막내 녀석이 태어났으니 이 녀석은 그야말로 부활둥이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막내의 출산이 없었더라면 한국에 나와 검사와 치료도 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 중국에서 계속 병을 키우고 있었을테니 녀석이야말로 저를 부활시켜준 부활둥이였습니다. 흔들리는 매화 앞에서 저를 찾아와 주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은 흔들리는 우리네 삶에 다가와 주시곤 합니다.

흔들리던 제자들에게 다가 오셨던 부활의 예수님은 참 따뜻했습니다. 주님은 부활 후 제자들을 찾을 때마다 먹을 것을 준비하시곤 하셨죠. 주님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묻곤하셨죠. 요즘 말로 치면 “밥은 먹고 다니니?” 일 것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던 수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볼 면목이 없었을텐데, 그에게 주님은 “얼굴이 그게 뭐니?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야지. 이리와~ 생선 귀찮으니 한 술 들자!” 하셨죠. 또한 한번은 부활의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서 세 시간 동안 몸부림 치던 것을 직접 보았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가던 예수를 보며 그들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죽음이 최후의 판결자라고 확신하고 낙향하기로 한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온통 사로잡혀 있던 그들을 주님은 친히 찾아가시어 그들과 저녁 식탁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보여주신 가장 인상적인 모습은 바로 ‘환대’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흔들리는 자기 백성들을 기꺼이 찾아가십니다. 이직, 결혼, 출산, 건강,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을 그냥 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시어 기어코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은 모두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이 판 치는 세상 한 가운데로 보내진 자들이지만, 죽음에 맞서 싸우는 동아리인 교회의 일원입니다. 때론 흔들릴 지언정 아주 앞드러지지 않음은 부활의 주님과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환대해주기 때문입니다.